<u> 소구</u>초등이 2022년 12월 15일

안방극장 내년에도 '女풍당당'

송혜교·고현정·김희애·이나영 등 OTT 새 작품서 열연 인기 예약 방송사 엄정화·김서형 출격 채비 "트렌드에 흥행보증 겹쳐 새 바람"

송혜교, 고현정, 김희애, 이나영, 엄 정화….

톱스타들이 대거 컴백한다. 이들은 주연 작을 잇달아 내놓으며 막바지 준비에 한 창이다. 뿐만 아니라 저마다 개성 강한 캐릭터로 변신해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특히 올해 박은빈 주연의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김혜수가 주연한 tvN '슈룹' 등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변신과 복귀의 무대로

송혜교는 30일 공개하는 넷플릭스 오 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를 통해 복수극 에 도전한다. 그는 극중 유년 시절 겪은 폭력에 복수하기 위해 온 인생을 내건 여 자를 연기한다. 앞서 로맨스 장르에 주력 해온 행보와는 사뭇 다른데다 2016년 KB S 2TV '태양의 후예'의 대본을 쓴 김은숙 작가와 6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고현정과 김희애도 OTT(온라인 동영 상 서비스)를 무대삼아 변신을 꾀한다. 이들은 각각 넷플릭스 '마스크걸'과 '퀸 메이커'의 촬영을 최근 마쳤고, 현재 후 반 작업을 마친 후 내년 중·하반기에 공





고현정



이나영





엄정화

개할 예정이다. 고현정은 극중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다 인생이 변해버린 주인공의 40대 시절을 연기한 다. 그는 파격적이고 기괴한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일찌감치 출연을 확정하고,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 으로 알려졌다.

김희애는 '퀸 메이커'에서 대기업 전 략기획실 실장이자 이미지 메이킹의 귀 재로 등장해 인권변호사 역의 문소리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 어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나영은 10월부터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가제)를 촬영하 고 있다. 그가 주연드라마를 내놓는 것

은 2019년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 이 후 4년 만이다. 극중 평범한 국어교사를 연기하면서 전국 곳곳으로 떠나는 여행 기를 드라마에 담는다.

다양한 방송사도 여성 주인공 드라마 들을 줄줄이 편성했다. 엄정화가 가정의 학과 레지던트로 분해 내년 봄 방영하는 JTBC '닥터 차정숙', 김서형이 주연한 스릴러 장르의 ENA '종이달' 등이다.

● "사회적 변화 반영"

이처럼 여성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이 야기를 끌어가는 포맷이나 여성 캐릭터 를 중심으로 한 '여성 서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는 14일 "남녀의

사회 활동 비중이 갈수록 균형 있게 변해 가고, 여성 제작 인력이 방송가에 늘어나 면서 관련 변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 됐다"고 평가했다. 또 "시청자들도 더 이 상 '여성 서사'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 면서 콘텐츠 차별화 전략으로 선택하는 제작진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관련 주제에 대한 여성 톱스타들의 관 심도 제작의 열기를 더하는 요소로 꼽힌 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많은 톱스 타들이 이른바 '원톱' 주연에 대한 갈증 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연을 검 토하는 분위기"라면서 "이 때문에 많은 제작사가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대본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방탄소년단 기념우표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그룹 방탄소년단 기념 우표가 나온다.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 본부는 14일 "2023년 방 탄소년단 우표를 발행 한다"고 밝혔다. 기념우 표는 역사적으로 중요

한 인물이나 사건 및 뜻 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발행하는 우표로, 1년에 20여 종 을 발행한다. 방탄소년단은 캐릭터 뽀로로, 아름다운 우 리말, 김상옥 의사 순국 100주년 등과 함께 기념우표 주 인공으로 선정됐다. 방탄소년단 기념우표는 '청춘의 기 록'이라는 주제로 내년 상반기 발행될 예정이다. 우표 디자인은 소속사 하이브와 협의해 결정된다.

'오겜2' 영국매체 '2023 기대되는 TV쇼' 1위



이정재 주연의 '오징어게임2'가 내년 가장 기대되는 콘텐츠로 선정됐다. 영 국 매체 포커스 헤럴드는 14일(한국시 간) '2023년 기대되는 TV쇼 톱10'이라 는 기사를 보도하며 '오징어게임2'를 1위로 꼽았다. '오징어게임2'는 구글 의 영국 월 검색량을 기준으로 총 7만

5000회를 기록했다. 2위에 오른 넷플릭스 인기 대표작 '기묘한 이야기'(6만5000회)에 크게 앞섰다. 영국 런던 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브리저튼'(9위·2만 회)의 검색 량도 제쳤다. 헤럴드는 "시즌1의 출연진 대부분이 죽었 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쇼를 이어갈지 궁금하게 만든다" 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가수 현숙. 어려운 이웃돕기 3000만원 기부



현숙(오른쪽)

가수 현숙이 구세군 자선냄 비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 했다. 14일 한국구세군에 따 르면 현숙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을 찾아 기부금 3000만 원을 전달했

다. 기부금은 현숙이 최근 한

상조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고 받은 광고비인 것으로 알 려졌다. 현숙은 "추운 겨울이 되면 어려운 분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 어려운 이웃들은 더 힘들다. 명동에서 무 명 시절부터 지켜봐 온 구세군 자선냄비에 작은 정성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종교·역사·재미 '3위1체'…영화 '탄생'의 힘

종교영화 불구 누적 27만명 흥행 좌석판매율 '올빼미' '압꾸정' 능가 "사극영화 느낌" 일반인들도 호평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이 천주교인들은 물론 일반 관객의 고른 호평을 이끌며 종교 영화로서는 의미 있는 흥행 성적을 내고 있 다. 종교를 넘어 역사영화로서의 재미까지 고루 갖춘 덕분이라는 일부 평가가 나온다.

1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 면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는 박스오피스 순위 3위 유지하며 13일까지 누적관객

26만5694명을 모았다. 상업영화조차 100만 관객 돌파가 힘든 비수기 극장에서 상영관수도 많지 않은 종교영화임을 감안 하면 의미 있는 성적이다.

체의 6.9%에 불과하지만 좌석판매율은 7.8%로 1위인 '올빼미'(6.0%)와 2위 '압꾸 정'(6.3.9%)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 관람 이 흥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CGV와 롯 데시네마의 예매 관객 분석에 따르면 관객 중 40~50대가 각각 62%와 44.7%로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다. 극중 김대건 신 부를 연기한 윤시윤도 "개봉관이 많지 않



배우 윤시윤이 한국 최초의 가톨릭 사제 김대건 신부 를 연기한 영화 '탄생'이 천주교인과 일반 관객의 고 른 호평 속에 의미 있는 흥행 성적을 내고 있다. 사진 사진제공 | 민영화사

아 찾아오기 쉽지 않은데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많이 관람하신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말했다.

일반 관객의 고른 호평도 눈길을 끈다. 김대건 신부의 시선을 통해 서구 열강들의 동아시아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조 선 말 외부 상황과 천주교 박해로 인한 혼 란한 내부 등이 역사로 받아들여지기 때 문이다. 누리꾼들은 "준수하고 완성도 높 은 역사물", "신자는 아니었지만 흥미로웠 던 사극영화를 본 느낌이다"라는 등의 반 응을 남기고 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역사적 배경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게 사실적으로 그려내 면서 역사적 인물이 주는 메시지와 재미까 지 갖춘 가장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도 "한국 역사 영화 역사상 고증을 가장 철저 하고 성실하게 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WELLCARE

속편하게 양배추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과채음료
원산지: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웰케어 한뿌리 양배추&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 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 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